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회령시를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잘 꾸려간다

회령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차기들이 사는 고장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유통하게 천연기념물 위한 전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최근 몇 해 간에 10여개에 달하는 대상건설을 끝낸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그 기세로 수백세대의 산집집과 배우관, 오수정화장을 비롯한 대상건설에 달라붙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회령시를 국경도시답게 더 잘 꾸리기 위하여서는 이미 작성된 도시건설제작 확도에 근거하여 도시건설을 전망설정 있게 일고나가야 합니다.』

여러해전 12월의 강추위

한국당에서 선 편성, 선 미학상의 원칙을 지키며 지켜진 건설물을 허상의 절적수준에서 일떠세우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다.

시안의 일군들은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건설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

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나아가고 있다. 회령시를 찾으신 위대한 회령시를 돌아보시면서 회령시를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잘 꾸려는데서 나서는 당황파 당도들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당법 뿐 있게 내밀어 건설속도를 높이고 있다.

시책임일군들은 매일 현지에서 흥행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면서 자체와 물자보장을 선정하시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 있다.

수색세대 살립집건설이 침있게 추진되고 있다.

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달려나온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영광의 땅에 인민의 학원을 더욱 활짝 끓여 풍성한 마음을 기관에 해제될 기세로 팔로공사에 진입하여 건설속도를 높이고 있다.

시안의 일군들은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건설조

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

나고 있다.

시인민위원회, 시험동농장 경영위원회를 비롯한 시지경 관 일군들은 건설장에 달려나와 불길의 정신으로 기초공

장을 흔들어 광고 생산을 정상화하는 한편 기계화비중

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당법

로 높이고 있다.

시책임일군들은 매일 현지에서 흥행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면서 자체와 물자보장을 선정하시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 있다.

매우관건설을 맡은 건설자들은 매일 수십m³의 벽체공과 터치기를 진행하고 내외부미장

을 동시에 내밀어 전축공사를

높은 기간에 해제될 기세로

이 지붕공사를 마지막단계에서 내밀고 있다.

세축운보다 훌륭히 꾸밀

불리는 월의인고 멘처나선 건

설자들은 수영관건설에 애국

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

고 있다.

한국당에서 흥행사업을

위해 지하수를 헤치고

